

清代 乾隆朝 『穿戴檔案』 服飾研究*

최 경 순

경북산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Emperor's Costumes during the Reign of Chien-lung in Ching Dynasty

Kyung-Soon Choi

Department of Clothing & Design, Associate Professor of Kyungpook Sanup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Ⅲ. 『清會典圖』의 皇帝 冠服과 비교 고찰
I. 緒 論	1. 冠
Ⅱ. 『穿戴檔案』의 복식	2. 衣服
1. 冠	3. 朝珠
2. 衣服	4. 帶
3. 朝珠	Ⅳ. 맺음말
4. 帶	참고문헌
5. 신발	

Abstract

The founding of ching costume system starts from the rule issued in second year of Te-chong reign that the clothing of Manchu people is prohibited to be chinesized. It has undergone many revisions and is officially established in the 37th year of Chien-lung reign. This study is Emperor's costumes during the year in chien-lung reign.

The results are as follows:

Emperor's costumes go to the travel are Chi-fu hat and Hsing-fu. Sea-dragon hat changes on otter skin or beaver hat and Ching-rong and ching-ni hat changes velvet hat. Light green informal wear is to be worn once a year. Name of sacrificial robes does

* 이 논문은 1995년도 본 대학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ot exist in Ching-hui-dien-tu but it take the place of Chao-fu I and Chao-dai II in Chuan-dai-dang-an, Sacrificial robes wear with indigo boots and the other cases wear blue boots and shoes and socks. The shape on ornaments in belt of sacrificial robes is tetragon style.

I. 緒 論

淸朝 王朝은 왕권 통치를 위해 漢族의 풍습, 습관, 생활방식을 滿族의 문화와 풍습으로 따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漢族의 傳統衣冠服飾을 滿族衣冠服飾으로 바꾸기를 희망했다. 이 과정에서 漢族의 강렬한 반항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王朝은 만주족의 전통복식을 기초로 冠服制度를 정하였다. 따라서 明代의 복식제도와는 비교적 큰 변혁이다. 淸代의 복식제도는 1636년 淸代 太宗文皇帝 皇太極의 后妃 孝庄文皇后的 시녀인 蘇麻喇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²⁾ 蘇麻喇姑는 몽고인이며 淸代 복식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淸初 중대한 역사 사건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³⁾ 崇德二年 上下冠服制度의 제정⁴⁾도 楊珍⁵⁾은 蘇麻喇姑가 참가한 冠服制定이라 했다.

이후 乾隆년에 만주복풍의 관복제도를 다시 한족풍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약 300년간 복장의 기본은 역시 만주복식을 모방한 양식이 청대복식의 특징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명 제도인 12장문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또 補服의 도안과 補 다는 방법을 달리하여 명제도와 차이를 두었다.⁶⁾ 이러한 청대복식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인 『淸會典圖』에는 복식제도와 그림을 병행하여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다. 康熙 23년 처음 편찬하였으며 이 후 雍正, 乾隆, 嘉慶, 光緒年代에 걸쳐 지속적으로 增補되었다. 건륭 37년(1772년)에 와서 청대복식이 정식으로 확립되었다.⁷⁾ 『淸會典事例』⁸⁾에는 관복제도만 기록하고 있다. 또 청대 황제가 실제 착용한 복식을 기록한 것을 『穿戴檔案』이라 한다. 여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 일기형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청대 황제복식을 모자에서 신발까지 모두 기록한 매우 방대한 자료로 당시 황제복식의 착용 상황을 알 수 있다. 건륭년간의 『穿戴檔案』은 100여쪽에서 400쪽에 이르는 것도 있다.

청대 복식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황제 및 황후복식을 비롯한 淸代 男女冠服制度를 개론적으로 소개한 『淸代服飾藝術』⁹⁾이 있다.

본고에서는 청대복식이 확립된 후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 보관하고 있는 『穿戴檔案』중에 가장 근 집 년대인 乾隆 41년 『穿戴檔案』을 선정했다. 이를 분석 조사한 후 다시 『淸會典圖』와

- 1) 戴平, 中國民族服飾文化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94. 9, pp. 228-234.
- 2) 楊珍, 蘇麻喇姑研究, 淸史研究通訊, 第2期, 1990, p. 25.
楊珍, 蘇麻喇姑與康熙帝, 故宮博物院院刊, 第1期, 1995. 7, p. 41.
- 3) 楊珍, 蘇麻喇姑研究, 淸史研究通訊, 第2期, 1990, p. 30.
- 4) 趙爾巽等撰, 淸史稿, 卷103, 志78, 輿服2, 中華書局出版, 1977, 1994.
- 5) 楊珍, 蘇麻喇姑研究, 淸史研究通訊, 第2期, 1990, p. 26.
- 6)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1994. 6, pp. 76-77.
- 7) 林淑心, 淸代服飾, 國立歷史博物館, 1988, p. 5. 台北.
- 8) 淸會典事例, 卷326, 禮部, 冠服, 中華書局, 1991. 9.
- 9) 陳娟娟, 淸代服飾藝術, 故宮博物院院刊, 惠64期, 紫禁城出版社, 1994. 2, p. 81-96.
앞책, 惠65期, 紫禁城出版社, 1994. 3, p. 48-61.

서로 비교하여 제도와 실제 착용한 복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주문헌으로 사용한 乾隆 41年 『穿戴檔案』은 中國第一 歷史檔案館에 보존하고 있으며 1冊 172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II. 『穿戴檔案』의 복식

1. 冠

재료는 貂, 狐, 羊皮, 狸狸, 海龍, 天鵝絨 등이다. 이 중 天鵝絨만 직물이고 이 외는 모두 동물의 皮를 사용하였다. 色은 黑色을 주로 사용하고 立夏(3월 10일)부터는 涼冠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재료도 藤으로 바꾼다. 또 제사에는 勒蘇草를 주로 사용하는데 즉 玉草이다.

2. 衣服

1) 袍

재료는 寧絢, 實地紗와 色은 醬色, 藍色, 油綠色을 사용하고 다른 색의 袍는 여러 차례 계절에 따라 착용하였지만 산동 순행에서 돌아온 후 油綠色 袍는 11월 3일 단 1회만 착용한다.

2) 巡行袍

2월 9일 황제가 山東지방으로 巡行을 나갔기 때문에 이후 10월 2일까지의 袍는 모두 巡行袍를 착용한다. 재료는 寧絢, 天馬皮, 羊皮, 實地紗 등이며 醬, 藍, 灰, 棕色을 사용한다.

3) 金龍袍

재료는 緝紗, 色은 黃, 藍, 醬色을 사용하여 單 혹은 衿으로 한다.

4) 朝袍

5, 11, 12월에 걸쳐서 년 3회 착용하였다. 재료는 緝紗, 緞을 사용하고 描金邊, 貂皮邊 장식하며 5월에는 單, 11, 12월에는 衿으로 만들어 착용한다.

5) 祭服

祭服의 착용은 <표 1>과 같고 3월 25일의 孔廟 제사 때는 祭服을 착용하지 않고 金龍袍를 착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山東 巡行 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6) 端罩

皇帝端罩은 褂 대신 주로 추운 계절에 착용하였다. 端罩은 1월 25일까지 착용하고 10월 28일부터 다시 착용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는 端罩대신 褂를 착용하였다. <표 2> 이 외에는 모두 如意端罩을 착용한다. 따라서 반드시 常服 위에는 如意端罩, 朝袍 祭服 위에는 朝端罩을 착용한다.

<표 1> 年間 祭服 着用例

日子	色	織物	邊	單·袷
1월 9일	藍	緞	貂皮	袷
2월 6일	黃	緞	染銀鼠皮	袷
5월 6일	黃	絳紗	○	單
10월 1일	黃	緞	染銀鼠皮	袷
11월 11일	黃	緞	貂皮	袷
12월 29일	黃	緞	貂皮	袷

<표 2> 年間 朝端罩 着用例

日子	時	비고
1월 9일	天誕之辰	袷祭服
11월 11일	冬至令節祭天宇祭邱壇	袷祭服
11월 25일	黃太后 萬壽聖節	朝袍
12월 15일	御殿	朝袍
12월 29일	太廟祭	袷祭服

7) 褂

褂는 1월 17일 이후 10월 27일 사이에 주로 착용하며 10월 27일 이후 年末까지 주로 端罩를 착용하지만 1월 中에는 褂와 서로 번갈아 가며 착용하였다.

褂의 종류는 褂, 金龍褂, 巡行褂, 長褂인데 褂는 常服褂, 巡行褂는 行褂이다.

재료는 狐, 羊皮, 灰風皮에 黃面, 緞面, 實地紗, 屯絹, 芝麻地紗, 羽緞을 사용한다. 實地紗縐二色金龍褂는 제사 때 金龍袍 위에 착용한다.

色은 黃, 靑, 石靑이지만 거의 대부분 石靑을 사용한다. 기후에 따라 單, 袷으로 만들거나, 재료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3. 朝珠

朝珠의 재료는 東珠, 正珠, 松石, 藍寶石, 藍寶石象嵌, 桃核, 珊瑚, 菩提, 伽楠香, 紅寶石象嵌, 椰子嗎呢, 琥珀, 金□絲象嵌寶石, 椰子五方佛, 綠玉, 黃碧玢, 朝珠 등 17종류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松石으로 年間 15회 사용하였으며 주로 일이 끝난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儀禮用으로는 주로 東珠朝珠가 사용되었으며 이 朝珠는 朝袍, 龍袍, 祭服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珊瑚, 正珠, 桃核朝珠도 사용 횟수가 많은 편이다.

4. 帶

帶의 종류는 朝帶, 大鞆帶, 線鞆帶, 巡行帶, 鈕帶, 鈕馬尾帶, 馬尾帶, 祭帶, 條帶, 軟帶 등이다. 이 가운데 朝帶는 朝冠 朝服을 착용할 때 사용한다. 재료는 金鑲松石, 金鑲紅寶石, 金鑲紅寶石四塊, 金鑲藍寶石 등 3종류를 사용하며 形態는 모두 圓形이다. 祭帶는 祭服과 함께 사용하고 재료는 靑金石과 琥珀을 사용하는데 帶 장식의 形態가 모두 方形이다.

5. 신발

祭服에는 반드시 藍色靴를 착용하고 이외에는 모두 靑色의 靴, 鞋, 襪을 신는다. 재료는 계절에 따라 羊皮, 緞, 羽緞, 薩林皮 등을 사용하고 靴의 명칭은 靴, 尖靴, 두 종류가 있으며 일이 끝난 후에는 항상 鞋를 신는다. 또 5월 5일 이후부터는 鞋襪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이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羽緞으로 기록된 것은 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Ⅲ. 『清會典圖』의 皇帝 冠服과 비교 고찰

1. 冠

『清會典圖』에는 朝冠¹⁰⁾, 吉服冠¹¹⁾, 常服冠¹²⁾, 行冠¹³⁾으로 나누어 제도화하고 있지만 『穿戴檔案』에는 모두 재료, 色 등을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清會典圖』의 冠에 사용한 재료들은 실제 『穿戴檔案』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같다. 황제가 산동 순행하는 시기에 행관과 행포를 입어야 하나 실제 모두 길복관에 행포를 착용했거나 행포의 재료만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清會典圖』에는 狸狸氈, 天鵝絨은 사용하지 않은 반면에 『清會典圖』에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즉 靑絨과 靑呢인데 이는 冬行冠¹⁴⁾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紫貂도 사용하지 않았다. 海龍은 황제 길복관에만 사용하는데 황제가 산동 순행 중 陵에 갈 때만 착용하고 환궁 후에는 순행포로만 갈아입는다. 그러므로 기록상으로는 海龍관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된다. 이외는 모두 狸皮를 사용한다. 海龍皮의 털은 가늘고 짧으며 뽀뽀하고 검푸른 색이지만 대개가 수달피 계통의 털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狸皮를 염색하여 사용하므로¹⁵⁾ 『清會典圖』와 다른 것은 이러한 영향일 것이다.



<그림 1> 皇帝冬朝冠
(清會典圖)

<그림 2> 皇帝夏朝冠
(清會典圖)

<그림 3> 皇帝冬吉服冠
(清會典圖)

10) 清會典圖, 권57, 冠服1, 皇帝朝冠圖, 皇帝冬朝冠, 有薰貂, 有黑狐, 惟其時, 上綴朱緯, 長出簷, 頂三層, 貫東珠各一, 皆以金龍四, 飾東珠如其數, 上銜大珍珠一, 梁二, 左頂左右, 簷下兩旁垂帶, 交項下, 皇帝夏朝冠, 織玉草, 或藤竹絲爲質, 表以羅, 緣石青片金二層, 裏用紅片金或紅紗, 簷敞, 上綴朱緯, 內加圈, 帶屬於圈, 前綴金佛飾東珠十五, 後綴舍利, 飾東珠七, 餘制如冬朝冠.

11) 앞책, 권71, 冠服15, 皇帝吉服冠圖, 皇帝冬吉服冠, 有海龍, 有薰貂, 惟其時, 簷上仰, 上綴朱緯長及於簷, 頂滿花金座上銜大珍珠一, 梁一, 互頂上, 簷下兩垂交項下, 皇帝夏吉服冠, 織玉草, 或藤竹絲爲質, 表以羅, 紅紗綢裏, 石青片金緣, 簷敞, 上綴朱緯, 內加圈, 帶於圈餘制如冬吉服冠.

12) 앞책, 권75, 冠服19, 皇帝常服冠圖, 皇帝冬常服冠, 紅絨結頂, 不加梁, 餘制如冬吉服冠, 皇帝夏常服冠, 紅絨結頂, 不加梁, 餘制如夏吉服冠.

13) 앞책, 권75, 冠服19, 皇帝行冠圖, 皇帝冬行冠, 黑狐爲之, 餘制如冬常服冠, 皇帝冬行冠, 黑羊皮爲之, 餘制如冬常服冠, 皇帝冬行冠, 靑絨爲之, 或用靑呢, 餘制如冬常服冠, 皇帝夏行冠, 織玉草爲之, 紅紗裏, 緣如其色, 上綴朱鬘頂及梁皆黃色, 前綴珍珠一.

14) 앞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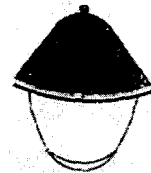
1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1991, p. 478.



皇帝夏吉服冠圖



皇帝冬常服冠·冬行冠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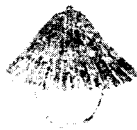


皇帝夏常服冠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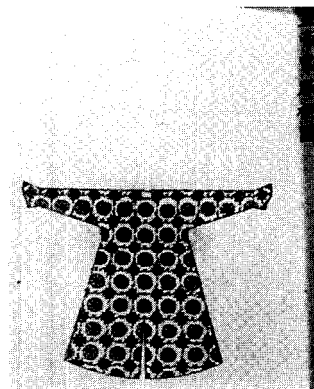
<그림 4> 皇帝夏吉服冠 (清會典圖)

<그림 5> 皇帝冬常服冠·冬行冠 (清會典圖)

<그림 6> 皇帝夏常服冠 (清會典圖)



皇帝夏行冠圖



<그림 7> 皇帝夏行冠 (清會典圖)

<그림 8> 皇帝常服袍 (清會典圖)

<그림 9> 皇帝常服 (紫禁城帝后生活)

또한 2월 6일과 10월 1일의 제복에도 '染銀鼠皮'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狸狸氈은 2월 18·19일과 3월 5~7일, 8월 22~29일, 9월 1~3일 연간 모두 16일간 사용하였다. 天鵝絨은 3월 8~9일, 8월 16~21일 모두 18일간 사용하였다. 여기서 狸狸氈은 동물皮이며 天鵝絨은 벨벳 직물인데 이것이 황제 冬行冠의 靑絨인지 아니면 다른 재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靑絨과 天鵝絨은 같은 색으로 보인다.

2. 衣服

1) 袍

『清會典圖』에 황제 常服¹⁶⁾의 색과 花文은 경우에 따라 정하고 옷의 앞뒤양옆 4곳에 트임이

16) 清會典圖, 卷75, 冠服19, 皇帝常服圖, 皇帝常服袍, 色及花文隨所御, 裾四開, 襟袷紗裘惟其時.

있다. 이 袍는 황제가 산동으로 巡行을 나감으로서 그 착용 예가 매우 적다. 황제의 常服과 常褂에 모두 花文을 사용하나 이외 어떤 옷에도 이 花文은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綠色 花卉포는 宣統元年『衣服等賬』¹⁷⁾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號~220號까지 일련번호를 달아 황제의복의 件數를 기록한 장부이다. 이 가운데 녹색 바탕에 八圓의 花卉가 있는 포는 단 1件뿐이다. 이 袍와 『穿戴檔案』의 油綠色 袍, 그리고 乾隆年間 녹색의 황제 常服¹⁸⁾과 동일한 것으로 淸 말기까지 황제상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行 袍

『淸會典圖』에서는 巡行袍를 行袍¹⁹⁾라 하고 그 제도는 常服 袍와 같지만 길이가 1/10짧고 右裾에 一尺의 트임이 있다. 소위 缺襟袍라 부르는 巡行袍는 말 타고 움직이기에 편리한 기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단추를 끼워 常袍의 양식을 취한다. 황제의 산동 순행에 이 袍를 주로 착용한다.

3) 龍 袍

『淸會典圖』²⁰⁾에는 명황색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穿戴檔案』의 藍, 醬色 金龍袍는 1일에만 사용한다. 이 중 장식은 예복 가운데 어느 곳에도 사용된 바가 없다. 龍 문양을 사용하는 포는 용포와 곤복, 조복 등이다. 이 중 金龍을 사용하는 곳은 용포와 곤복뿐이다. 용포는 반드시 명황색을 袞服²¹⁾은 석청색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해지는 실물에서 藍色 龍袍를 찾을 수 있다. 藍緞地彩繡吉服袍²²⁾인데 남색은 가장 보편적인 색으로 황제부터 백관 내시까지 모두 착용하며 金龍을 앞가슴, 뒤, 좌우 어깨에 正龍을, 아래쪽 좌우에 行龍을 수놓았다. 그리고 龍袍가 길복 범주에 속하고 『穿戴檔案』의 藍色 金龍袍의 대부분이 ‘繡二色’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藍緞地彩繡吉服袍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4) 朝 服

『淸會典圖』의 皇帝朝服制度²³⁾는 冬·一·二, 夏로 구분되어 있다. 冬朝服은 冬至, 제사 때 藍色을 사용, 夏朝服은 祈雨祭 올릴 때 착용하는데 역시 藍色이다. 다만 披領 및 裳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穿戴檔案』에서는 紅色 朝服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朝日祭는 올리지 않은 듯하다. 朝服의 형태에서 冬朝服 두 종류는 서로 다르고 冬朝服二와 夏朝服 형태와 披領

17) 朝(袍·褂·裙) 龍(袍·褂) (八圓·領袖)袍 衣服等賬, 宣統元年四月立, 中國第一 歷史檔案館所藏, 六十六號 練江綢八圓花卉袍一件.

18) 故宮博物院編, 紫禁城帝后生活, 中國旅游出版社, 1992, p. 68.

19) 앞쪽, 皇帝行袍圖, 皇帝行袍, 制如常服袍, 長減十之一, 右裾短一尺, 色及花文隨所御, 緜袷紗裘惟其時.

20) 앞쪽, 卷71, 冠服15, 吉服一, 皇帝龍袍圖, 皇帝龍袍, 色用明黃, 領袖俱石膏, 片金綠, 繡文, 金龍九, 列十二章, 間以五色云, 領前後正龍各一, 左右及交襟處行龍各一, 袖端正龍各一, 下幅八寶立水, 裾四開, 絛裘惟其時.

21) 앞쪽, 권57, 관복1, 皇帝袞服圖, 皇帝袞服用石膏, 繡五爪正面金龍四圓.

22) 林淑心, 清代服飾, 國立歷史博物館, 1988. 6, p. 31, 台北.

23) 淸會典圖, 卷57, 冠服一, 皇帝朝服圖, 皇帝冬朝服一, 色用明黃, 惟圓新穀用藍, 披領及裳, 俱表以紫貂, 袖端薰貂, 繡文, 兩肩前後正龍各一, 襟行龍六, 衣前後列十二章, 間以五色云, 皇帝冬朝服二色用明黃, 惟朝日用紅, 披領及袖俱石膏, 片金加海龍綠, 繡文, 兩肩前後正龍各一, 腰行龍五, 正龍一, 襟前後龍各九, 裳正龍二行龍四, 披領行龍二, 袖端正龍各一, 前後列十二章, 日月星辰山龍華蟲沙在衣, 宗彝藻火紛米在裳, 間以五色云, 下幅八寶平水, 皇帝夏朝服, 色用明黃, 惟常服用藍, 夕月用月白, 披領及袖俱石膏, 片金綠, 緞紗單, 惟其時, 餘制如冬朝服二.



<그림 10> 皇帝行袍 (清會典圖) <그림 11> 皇帝龍袍 (清會典圖) <그림 12> 皇帝冬朝服1 (清會典圖)

과 소매 끝 장식의 石靑색은 같으나 片金加海龍緣과 片金緣만 다르다. 즉 계절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외는 모두 冬朝服二와 같다.

5) 祭服

『穿戴檔案』에는 祭服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清會典圖』에는 祭服에 관한 기록이 없다. 다만 『穿戴檔案』에서의 色, 직물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단지 朝服制度 중 祭 올릴 때 黃色과 藍色을 이용한다. 제복은 중국역대복식 중 가장 귀중한 복식이며 제사 때 조복으로 대신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예가 『穿戴檔案』에도 나타났다.

6) 端罩

『清會典圖』²⁵⁾에는 계절에 구분없이 단지 色, 형태, 착용범위 등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으나 『穿戴檔案』에는 1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운 계절에만 착용하였다. 形態는 길이가 袍보다 짧고 褂보다 길며 對襟이다. 청대 皮裘는 일반적으로 옷 안쪽에 두지만 端罩은 모를 바깥에 노출하여 마치 현대 여자의 모피 옷을 연상하게 한다.²⁶⁾

7) 褂

『清會典圖』에는 常服褂²⁷⁾와 行褂²⁸⁾制度만 있지만 『穿戴檔案』에는 褂, 金龍褂, 巡行褂, 長褂 등 4종류이다. 金龍褂는 반드시 金龍袍와 함께, 單金龍褂는 單朝袍와 같이 착용하고 주로 모두 祭服으로 착용한다. 또한 長褂는 항상 長金袍와 같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4) 周 汎·高春明, 中國歷代服飾大觀, 重慶出版社, 1995. 3. pp. 254, 263.

25) 清會典圖, 권57, 冠服1, 皇帝端罩圖, 皇帝端罩, 有黑狐, 有紫貂皆明黃緞裏, 左右垂帶各二, 下廣二銳, 色與裏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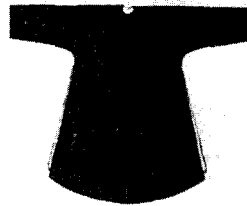
26) 周錫保, 앞책, p. 481.

27) 清會典圖, 권57, 冠복1, 皇帝常服褂圖, 皇帝常服褂, 色用石靑, 花文隨所御, 緜袷紗裘惟其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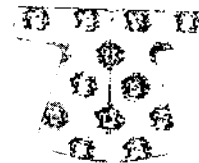
28) 앞책, 皇帝行褂圖, 皇帝行褂, 色用石靑, 長與坐齊, 袖長及肘, 緜袷紗裘惟其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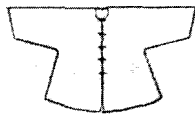
<그림 13> 皇帝冬朝服2·夏朝服(清會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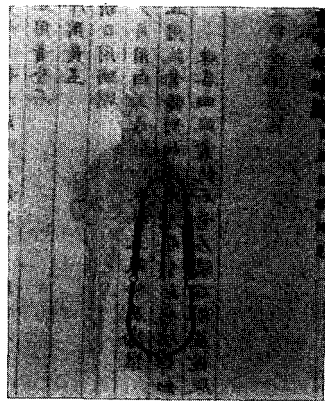
<그림 14> 皇帝端(清會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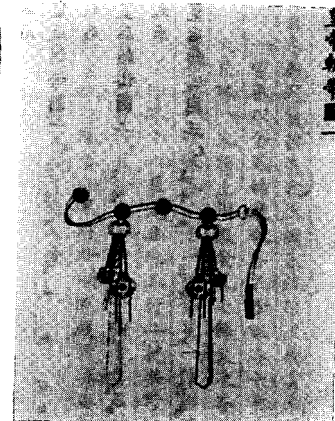
<그림 15> 皇帝常服(清會典圖)



<그림 16> 皇帝行(清會典圖)



<그림 17> 皇帝朝珠(清會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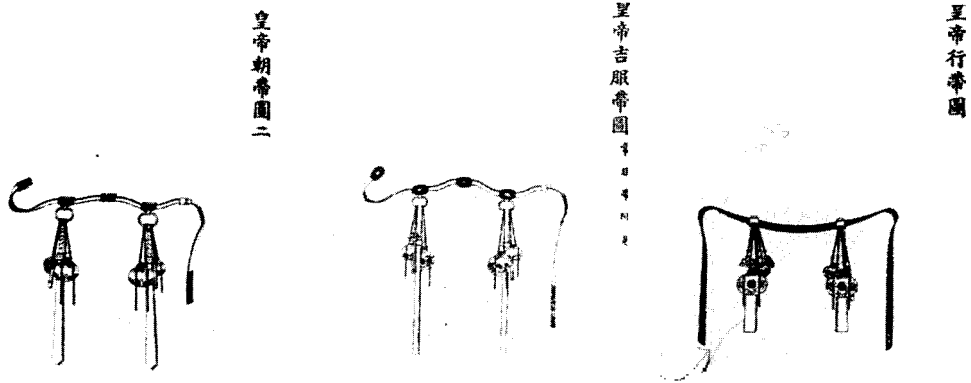


<그림 18> 皇帝朝帶1(清會典圖)

常服褂의 길이는 袍와 비슷하며, 行褂는 겹기에 편리하게 무릎길이, 소매도 짧아 팔꿈치에 닿으며 常服褂와 달리 기능성이 있다. 색은 『清會典圖』에 모두 石靑이고 『穿戴檔案』에 나타난 색도 주로 石靑이지만 黃色도 여러 차례 사용한다. 이 黃色은 주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는데 狐, 羊皮, 鼠皮 등과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皮의 색은 黑, 灰色羊皮, 灰鼠皮를 사용하였다.

3. 朝 珠

『清會典圖』의 皇帝朝珠²⁹⁾는 東珠108개를 꿰는 것인데 圓丘 때 靑金石, 方澤時 蜜珀, 朝日에는 珊瑚, 夕月에는 綠松石을 사용하며, 吉服朝珠는 경우에 따라 정하며 條는 모두 明黃色을 사용한다. 실제 사용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용한 朝珠는 모두 17종류이며



<그림 19> 皇帝朝帶2
(清會典圖)

<그림 20> 皇帝吉服帶
(清會典圖)

<그림 21> 皇帝常服皇帝行帶
(清會典圖)

『清會典圖』의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方澤時 琥珀 대신 珊瑚를 사용한 것이다.

4. 帶

『清會典圖』에 皇帝朝帶一·二³⁰⁾, 吉服帶 및 常服帶³¹⁾, 行帶³²⁾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祭服과 마찬가지로 祭帶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한 것은 帶의 색이 모두 明黃色이다. 형태는 朝帶一이 圓版, 二는 方版, 吉服과 常服은 方圓版도 가능하고 行帶는 版이 아닌 纓으로 구분하는데 祭帶로 사용한 것은 모두 方형이다. 『清會典圖』에 方澤用黃玉이지만 『穿戴檔案』에는 黃玉 대신에 琥珀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寶石의 재료는 다르지만 색은 同一한 黃色이므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朝帶二를 祭帶로 사용한 것이다.

『清會典圖』의 황제 吉服帶, 朝帶一·二로 구분하지만 실제 착용에서는 朝帶一은 조복과 함께 착용하고 朝帶二를 사용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吉服帶는 方形 또는 圓形을 사용하고 이에 장식하는 보석은 珠玉이지만 실제로는 朝帶二와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佩紛의 색으로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에 관한 기록이 『穿戴檔案』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帶를 장식하는 보석의 형태와 종류로 구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복을 입을 때 朝帶一, 제복을 입을 때 朝帶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9) 앞책, 皇帝朝珠圖, 皇帝朝珠用東珠一百有八, 佛頭記念背云大小墜珍寶雜宣, 惟圓丘以青金石爲飾, 方澤珠用琥珀, 朝日用珊瑚, 石月用綠松石, 雜飾惟宜, 吉服朝珠, 珍寶隨所御條皆明黃色.

30) 앞책, 皇帝朝帶圖, 皇帝朝帶一, 色用明黃, 龍文金圓版四, 飾紅寶石或藍寶石, 綠松石, 每版銜東珠五, 圓珍珠二十, 左右佩紛, 淡藍及白各一, 下廣以銳, 中約鏤金圓結, 飾寶如版, 圓珠各三十, 佩囊文繡, 纓釧刀削結佩惟宜, 條皆明黃色. 皇帝朝帶二, 色用明黃, 龍文金方版四, 其飾, 圓丘用青金石, 方澤用黃玉, 朝日用珊瑚, 石月用白玉, 每版銜東珠五, 佩紛及朝, 惟丘用純青, 餘制如圓版朝帶, 中約圓結, 飾如版, 銜東珠各四, 佩囊純石青, 左釧右削, 並從版色.

31) 앞책, 皇帝吉服帶圖, 皇帝吉服帶, 色用明黃, 鏤金版四, 方圓隨所御, 銜以珠玉雜寶惟宜, 左右佩紛純白, 下直而齊, 中約金結, 飾如版, 飾制如朝帶. 皇帝常服帶, 與吉服帶制同.

32) 앞책, 皇帝行帶圖, 帝行帶, 色用明黃, 左右佩囊, 用紅香牛皮, 飾金花文, 綏銀纓各三, 佩紛以高麗布視常服帶紛微闊而短, 中約以香牛皮束, 綴銀花文, 佩囊明黃, 圓條飾珊瑚結, 前纓雜佩惟宜.

IV. 맺음말

청대 乾隆 41년 황제의 연중 착용한 복식은 『清會典圖』의 제도와 거의 비슷하며 다음의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순행에는 행관과 행포를 착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길복관과 행포를 사용하였다. 冠의 재료는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는데 海龍이 狸狸氈으로 靑絨, 靑呢는 天鵝絨으로 바뀌었으며 紫貂는 사용하지 않았다. 화혜 수 장식이 있는 油綠色 황제 常服을 년1회 착용한다. 祭服이란 명칭은 『清會典圖』에는 없으며 『穿戴檔案』과 비교한 결과 朝服一, 朝帶二를 祭服과 祭帶로 사용하였다. 『清會典圖』에는 신발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穿戴檔案』의 祭服에는 남색 靴을 신고 이 외 모두 청색의 靴鞋襪을 신는다. 朝珠의 재료와 祭帶로 사용한 朝帶의 장식은 동일한 색의 다른 보석으로 바뀌었으며 祭帶의 장식은 모두 방형이다. 여기서 재료의 대체는 이 당시 재료의 수급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차이점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며 건륭 41년의 황제복식을 건륭朝 황제복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청대 궁중복식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檔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穿戴檔案, 乾隆 41年, 中國第一歷史 檔案館所藏.
2. 楊珍, 蘇麻喇姑研究, 清史研究通訊, 第2期, 1990.
3. 楊珍, 蘇麻喇姑與康熙帝, 故宮博物院院刊, 第1期, 1995. 7.
4. 趙爾巽等撰, 清史稿, 中華書局出版, 1977, 1994.
5. 陳娟娟, 清代服飾藝術, 故宮博物院院刊, 總64期, 紫禁城出版社, 1994. 2.
6. 앞책, 總65期, 1994. 3.
7. 清會典圖, 中華書局, 1991.
8. 清會典事例, 中華書局, 1991.
9.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1994. 6.
10.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1991.
11. 林淑心, 清代服飾, 國立歷史博物館, 1988. 6, 台北.
12. 周汎,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出版社, 1995. 3.
13. 載平, 中國民族服飾文化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94. 9.
14. 故宮博物院編, 紫禁城帝后生活, 中國旅遊出版社, 1992.